

존귀함과 고결함, <양반전>의 인물 대립과 양반상(兩班像)

이강엽*

<차례>

1. 문제의 제기
2. 존귀함과 고결함 : 『방경각외전(放靑閣外傳)』의 인물들
 - 1) 양반에 있어서의 존귀함과 고결함
 - 2) 존귀함과 고결함의 역설(逆說): 『방경각외전(放靑閣外傳)』
3. <양반전> 인물의 대립 양상
 - 1) 양반과 상민 : 정선 양반 대(對) 천부(賤富)
 - 2) 사(士)와 대부(大夫) : 정선 양반 대(對) 군수
4. <양반전> 전체 구성과 참된 양반상(兩班像)
5. 마무리

<국문초록>

이 글은 존귀함과 고결함의 관계에서 <양반전>의 인물 대립에 대해 논하였다. 첫째, 존귀함과 고결함의 관계에 입각하여 『방경각외전』의 인물들을 살핀 결과, 신분과 존귀함과 정신적 고결함의 엇갈림이 강조되었다.

둘째, <양반전>의 인물은 정선양반 대 천부(賤富), 정선 양반 대 군수가 양반 대 상민, 사(士) 대 대부(大夫)의 대립구도를 보인다. 전자에서 정선양반은 표면적으로는 고결한 정신 상태를 보이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몰염치한 면을 드러내는 이중성을 보이며, 천부 또한 표면적으로는 양반에 상응하는 덕목을 갖춘 듯이 기술되지만 그 이면에는 남의 어려운 틈을 타 사욕을 채우려는 욕망이 드러난다. 후자에서 정선 양반은 선비의 미덕을 갖춘 훌륭한 양반으로 기술되지만 그 이면에는 생활력이 부족한 무능력함을 드러내며, 군수는 표면적으로는 관할 백성들을 편안하게 다스리고자 애를 쓰는 면이 부각되지만 그 이면에는 특정세력의 이익을 위해

* 대구교육대학교 국어교육과

간계를 쓰는 사악함을 담고 있다. 결과적으로 『방경각외전』의 다른 작품들처럼 존귀함과 고결함이 역설 관계를 보이는 게 아니라 어느 한쪽도 정상적으로 살아나가기 어려운 총체적 난국임을 드러낸다.

셋째, 전체구성에서 <양반전>에 나타나는 양반상을 살피면 박지원이 <명론(名論)>에서 주장한 명(名), 욕(欲), 치(恥)는 중요한 준거가 된다. 박지원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군자일 수 없기에 명과 욕과 치를 적절하게 사용하여야 세상이 잘 다스려진다고 보았는데, <양반전>의 세 인물은 최소한 어느 한쪽의 부족으로 인해 한결같이 결함을 지니게 된다.

□ 박지원, 양반전, 방경각외전, 존귀함, 고결함, 명론

1. 문제의 제기

사람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언제나 누군가와 함께 한다는 뜻이다. 그래서 사람들의 행위는 항상 누군가를 의식하고 드러나기 일쑤이다. 이 점에서 ‘위선(僞善)’이나 ‘위악(僞惡)’은 어쩌면 필수불가결한 일이며, “신조차도 자신의 선을 입증하기 위해 악마의 가면이 필요했을지 모른다.”¹⁾는 진술이 힘을 갖는다. 이 경우, 대체로 실제의 비천함을 감추고 고귀함으로 위장하기 쉬운데, 사실은 ‘고귀함’ 그 자체에서부터 가면이 생성될 여지가 있다. 고귀(高貴)함이라는 말은 원천적으로 ‘높다’와 ‘귀하다’의 복합이며, 일반적으로 높은 데 있는 사람이 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높은 데 있는 사람이 귀하지 않을 때, 혹은 낮은 데 있는 사람이 귀할 때, 분열이 일어난다. 고전서사에서 이러한 분열을 잘 다룬 예로 박지원(朴趾源)을 따를 사람이 없다. 그의 『방경각외전(放穉閣外傳)』에 나

1) 안네마리 피퍼, 『선과 악』, 이재황 옮김, 이끼리오, 2002, 6쪽.

오는 대부분의 인물이 그러한 분열상을 담아내고 있어서 높은 지위의 사람이 정신적으로 비천하다거나 낮은 지위의 사람이 도리어 고결하다. 그러나 존귀함과 고결함은 생각만큼 간단하게 재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지라르 식으로 말하자면, 욕망이 자신에게서 나오고, 끝까지 그것을 만족시키려 할 때 고귀함이 생겨난다.²⁾ 그런데, 이 두 조건은 매우 쉬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완전한 수양을 쌓은 군자나, 세속적 욕망을 완전히 끊어낸 성자(聖者)가 아니라면 다가서기 힘든 내용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는 욕망은 내적으로 자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추동되거나 누군가를 선망하느라 생겨나기 때문이다. 또, 내면에서 비롯된 욕망이라 하더라도 끝까지 치열하게 추구하는 사람이 흔치 않다. 설령 그런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에 걸맞은 사회적 고귀함이 영예롭게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 글은 이런 문제에 착안하여 『방경각외전』 가운데 <양반전(兩班傳)>의 인물 대립에 대해 살피려 한다. 외적으로 드러나는 신분이나 지위의 고귀함인 ‘존귀’함과, 상대적으로 내적으로 숨어 있기 쉬운 인품이나 학예 같은 데에서의 고귀함인 ‘고결’함이 등장인물에 어떻게 드러나는가를 통해 이상적인 인간상, 곧 연암이 추구하는 양반상에 대해 검토하려는 것이다. 어느 한 인물이 일방적으로 존귀함과 비천함이나 고결함과 저속함을 갖는다는 수준을 넘어, 한 인물에게서 존귀함과 비천함이 교차하고 고결함의 이면에 저속함을 드러내는 등의 복잡한 양상에 대해 살피려 한

2) “욕망이 자신에게서 나오며, 마지막까지 애를 써 그것을 만족시키려는 사람은 고귀하다. 고귀함은 그러니까 정신적 의미에서 정열과 완전히 동의어이다. 그러므로 사회적인 의미에서 고귀함이 있기 위해서는 정신적 의미에서 우선 고귀함이 있어야 한다.” -르네 지라르, *La Route antique des hommes pervers* (옛 사람들이 걸었던 사악한 길), Paris:Grasset, 1985, 122쪽. 김현, 『르네 지라르 혹은 폭력의 구조』, 나남, 1987, 33쪽에서 재인용.

다. 이를 위해 존귀함과 고결함에 대한 원론적인 검토를 하고, 이를 토대로 <방경각외전>의 인물을 개괄한 후, <양반전> 인물들의 대립 양상에 대해 살피는 순서를 취한다.

2. 존귀함과 고결함 : 『방경각외전(放瓊閣外傳)』의 인물들

1) 양반에 있어서의 존귀함과 고결함

여러 계층이 촘촘한 위계를 이루거나 다양한 영역에서의 우열을 인정하는 사회가 아닌 경우, 대략 서로 다른 두 계층이 고귀함과 비천함을 각각 나누어 갖게 된다. 그러나 “세속적인 권력의 위계와 ‘비세속적인’ 권력의 위계 간의 터무니없는 불일치”³⁾는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고귀함을 주장하기 어렵게 만든다. 세속적인 권력을 갖는 특수계층이 문화나 예술 같은 비세속적인 권력까지 장악할 때, 그 계층의 고귀함에 이의를 달기 어렵기 마련이지만 둘이 어긋날 경우는 반발을 불러오는 것이다. 문제는 어떻게 하면 사회적 욕망과 정신적 욕망, 세속적인 권력과 비세속적 권력의 균형을 찾을 것이냐 하는 데로 귀결된다.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높은 지위를 ‘존귀함’으로, 보통 사람이 도달하기 어려운 정신적인 성취를 ‘고결함’으로 규정한다면, 이 둘은 분명 양립 가능한 것이다. 고결하면서 존귀한 이상적인 인간상을 꿈꿀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고결함은 개인의 노력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인 데 반해서 존귀함은 사회적인 승인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어떤 계층에게는 원천적으로 봉쇄된 이상일 수도 있다. 반대로, 귀족 계층으로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저

3) 베에르 부르디외, 『구별짓기 : 문화와 취향의 사회학 (하)』, 최종철 옮김, 새물결, 2006, 578쪽.

속한 품성의 인간도 있어서 둘 사이의 관계는 한층 복잡해진다. 더욱이 조선조의 ‘양반’처럼 그 외연이 명료하지 않은 계층에서라면 이런 문제가 한결 더 심각해진다. 주지하는 대로 양반은 “법제적인 절차를 통해서 제정된 계층이 아니라 사회관습을 통해서 형성된 계층”⁴⁾이다. 물론, 사회관습이라고 해도 통용되는 기준이 비교적 명료해서 양반이 아닌 계층이 양반을 사칭하거나, 양반이 아무 이유 없이 상민으로 강등되는 일은 없었다. 그러나 주로 서울에 거주하는 명문가 양반인 재경(在京) 양반인 경반(京班) 아닌, 지방의 ‘향반(鄕班)’이라면 특별한 자격이 요구되었다. 그 자격은 대략 다음이 네 가지, 곧 (1)과거 합격자 또는 저명한 학자를 조상으로 둘 것, (2)세거지(世居地)가 있을 것, (3)양반의 생활양식을 보존할 것, (4)혼족(婚族)도 위의 세 조건을 갖출 것 등이다.⁵⁾

이 넷 중 (1), (2)는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다. (1)은 그 가문의 그 혈통이 고귀하다는 뜻이며, (2)는 그 가문이 특정한 영역에서 세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뜻이다. 전자가 종적인 계통을 드러낸다면, 후자는 횡적인 세력을 나타낸다. 이는 곧 한 가문이 고귀한 조상에서 비롯되어 그 이후로도 뚜렷한 족적을 남겼으며, 그 세력이 현재에도 확고하게 뿌리를 내렸다는 뜻이다. (4)는 (1)과 (2)를 강화하는 보조적인 장치이다. 비록 (1)과 (2)를 다

4) 송준호, 『조선사회사연구』, 일조각, 1987, 37쪽.

5) “(1) 과거 합격자, 또는 과거에 합격하지 않았지만 당대를 대표하는 저명한 학자를 조상으로 모시고 있을 것이며 그와 함께 그 조상으로부터 계보 관계가 명확할 것. (2) 여러 대에 걸쳐 동일한 집락(集落)에 집단적으로 거주하고 있을 것. 이런 당대의 거주지를 세거지(世居地)라고 하는데, 세거지에서는 양반 가문이 동족 집락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3) 양반의 생활양식을 보존하고 있을 것. 양반의 생활양식이란 조상 제사와 손님에 대한 접대를 정중히 행하는(봉제사(奉祭祀) 접빈객(接賓客)) 동시에 일상적으로는 학문에 힘쓰고 자기 수양을 쌓는 것이다. (4) 대대의 결혼 상대, 즉 혼족(婚族)도 (1)에서 (3)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집단에서 고를 것” -송준호, 『조선사회사연구』, 일조각, 1987, 37쪽.

갖추었다 하더라도 (4)를 충족하지 않으면 배우자의 비천함으로 인해 그 후손이 비천해진다는 논리이다. 결국, (1), (2), (4)는, 비록 ‘저명한 학자’ 같은 다소나마 이론(異論)이 야기될 기준이 있기는 해도, 과거 합격자 같은 객관적인 지표처럼 구체적 준거로 작동한다.

이에 반해 (3)은 그 성격이 아주 다르다. 양반 고유의 생활양식을 지킨다는 데 명료한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제사를 모시고 손님을 접대하는 수준은 그야말로 천차만별이다. 가령, 친상(親喪)에서 복상(服喪) 기간을 양반은 3년, 향리층은 100일로 규정할 수는 있지만 그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경우일 뿐, 향리층이라 하더라도 제사를 더 정성껏 모시고 손님을 더 극진하게 대접한다면 향리와 향반의 변별 기준이 모호해질 법도 하다. 결국 안동 같은 지역은 향리에게도 ‘유학(幼學)’의 칭호가 허락되었고⁶⁾, 이것은 곧 과거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을 의미했다. 학문에 힘쓰고 수양하는 일 또한 어느 정도에 도달해야 양반의 품격, 곧 반격(班格)을 갖는 것인지 정해진 바가 없다.

더욱 큰 문제는 (3)이 전혀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1), (2), (4)를 갖춘 바람직하지 못한 경우가 생기더라도 여전히 향반(鄕班)일 수 있다는 점이다. 어차피 제도에 의해 주어진 자격이 아니기 때문에 그 자격을 박탈할 방법 또한 마땅치 않았기 때문이다. 나아가, 경반(京班) 중에서도 혼족(婚族)이 낮은 지위일 경우, 4대 이상을 이렇다 할 환로(宦路)에 나서지 못한 경우 등 외형상으로도 양반으로 인정될 처지의 사람들이 많았다. 신분상 양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반격(班格)을 갖춘 사람이나, 양반임에도 불구하고 반격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속출하면서 개인의 삶 또한 혼란스러웠다. 세상이 요구하는 양반의 역할을 하느라 자아가 분열되거나,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대립하는 인물들이 등장하고, 그런 인물들

6) 이런 상황은 미야지마 히로시, 『양반』, 노영구 역, 강, 1996, 244~245쪽 참조.

을 다루는 작품도 자연스레 늘어갔으며, 고전서사에서 그 복잡한 양상을 포착하는 일은 너무도 당연했으며, <양반전>은 그 정점에 선다.

2) 존귀함과 고결함의 역설(逆說): 『방경각외전(放瑯閣外傳)』

박지원이 소설에서 인물을 내세울 때는 그 신분을 분명히 했고, 신분과 불균형을 이루는 어떤 요소에 집중하곤 했다. 가령, 양반과 중인이 있을 때면 당연히 양반이 글을 잘 지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그는 중인이 글을 잘 짓는 상황을 제시하면서 거기에서 의미를 찾으려 애쓴다. 또, 비록 실제 상소(上疏) 행위로까지는 이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가 서열(庶孽)의 소통을 청하는 글을 남겼다는 것은, 신분과 인품의 불균형에 민감했다는 사실을 입증한다. 그는 『맹자』를 인용하면서 “귀천이 다름망정 덕이 있으면 스승이 될 수 있고 나이가 같지 않더라도 인(仁)을 도울 경우에는 벗이 될 수 있다는 말인데, 더구나 서열은 본디 모두 양반의 자제들입니다.”⁷⁾라며 덕이 있는 서열의 중용을 촉구했다.

그러나, 엄밀하게 말해 그 근간에 모든 인간이 평등하다는 의식이 깔린 것은 아니었다. 서열 가운데도 여느 양반층 못지않은 덕과 인품을 쌓은 사람이 있다는 게 그 첫째 근거이고, 서열들 역시 양반의 자제임이 분명하다는 게 그 둘째 근거이다. 요컨대, 학문이나 덕행 등에서는 반격(班格)을 갖추었으며, 그 혈통 역시 양반에 뿌리를 둔 경우라면 배척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그는 또 유자광(柳子光) 같은 일자(孽子)가 국기를 뒤흔 든 사건이 있었다는 이유로 서열을 배척하려는 움직임이 가속화된 점을 적시하면서, 거꾸로 “만약에 불행하게도 양반자손 중에서 난신적자가 뒤 이어 나왔을 경우 또 장차 무슨 법으로 처리하시겠습니까?”⁸⁾라고 반문한

7) 박지원, <서열의 소통을 청하는 의소(擬疎)>, 『연암집(중)』, 신호열·김명호 옮김, 돌베개, 2007, 134쪽.

다. 이는 양반이더라도 난신적자라면 폐서인(廢庶人)하는 이치 그대로, 서열(庶孽)이더라도 자격을 갖추었다면 중용해야 한다는 논리이다.

이런 생각은 정통 의론을 넘어 자유로운 글쓰기로 들어가면 그보다 훨씬 더 심화될 수 있는데, 『방경각외전(放穉閣外傳)』에 실린 전(傳) 작품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외전(外傳)’의 표제를 단 만큼 자유로운 희필(戲筆)이 가능했고 뜻하는 바를 비교적 또렷하게 표출할 수 있었을 것이다. 『방경각외전』을 지은 뜻은 작가가 맨 앞에 달아놓은 <자서(自序)>에 잘 드러나는데, 그 가운데 신분과 인품의 괴리를 드러낸 대목을 보이면 다음과 같으며, 편의상 ㉠는 신분이나 지위는 낮지만 상대적으로 인품이나 학예 등이 높은 경우로, ㉡는 그 반대의 경우로 갈라 본다.

- ㉠ 세 광인이 서로 벗하며 세상 피해 떠돌면서 ㉡ 참조하고 아침하는 무리를 논하는데 그들의 얼굴이 비치어 보이는 듯하네.⁹⁾ <마장전(馬駟傳)>
- ㉠ 선비가 먹고사는 데에 연연하면 온갖 행실 이지러지네. ㉡ 엄행수는 똥으로 먹고살았으니 하는 일은 더털망정 입은 깨끗하다네.¹⁰⁾ <예덕선생전(穢德先生傳)>
- ㉠ 민옹은 사람을 황충(蝗蟲)같이 여겼고, ㉡ 게으른 이들을 깨우칠 만하네.¹¹⁾ <민옹전(閔翁傳)>
- ㉠ 영달해도 선비 본색 안 떠나고 곤궁해도 선비 본색 잃지 않네. ㉡ 이름 절개 닦지 않고 가문 지체 기화 삼아 조상의 덕만을 판단면 장사치와 뭐가 다르랴?¹²⁾ <양반전(兩班傳)>

8) 박지원(2007), 128쪽.

9) ㉠三狂相友 逐世流離 ㉡論厥讒詔 若見鬚眉 -박지원(2007), 144쪽.

10) ㉠土累口腹 百行餒缺 ㉡嚴自食糞 迹穢口潔 -박지원(2007), 144쪽.

11) ㉠閔翁蝗人 ㉡可警惰慵 -박지원(2007), 144~145쪽.

12) ㉠達不離士 窮不失士 ㉡不飭名節 徒貨門地 酷嚮世德 商賈何異 -박지원(2007), 144쪽.

- ㉑ 세상이야 맑건 흐리건 청정(淸淨)을 잃지 않았으며 남을 해치지도 않고
 탐내지도 않았네.¹³⁾ <김신선전(金神仙傳)>
- ㉒ 이름나기 좋아하지 않았음에도 형벌을 면치 못하였거든 ㉓ 더구나 이름
 을 도적질하여 가짜로써 명성을 다룬 경우리요.¹⁴⁾ <광문전(廣文傳)>
- ㉔ 서울에서 사라진 예(禮)를 ㉕ 시골에서 구한다더니¹⁵⁾ <우상전(虞裳傳)>
- ㉖ 시를 읊으면서 무덤을 도굴하는 위선자요 사이비 군자라네.¹⁶⁾ <역학대
 도전(易學大盜傳)>
- ㉗ 집에서 효도하고 밖에서 공손하면 배우지 않아도 배웠다 하리니.¹⁷⁾ <봉
 산학자전(鳳山學者傳)>

서문에 드러난 대로만 보자면 어떤 것은 ㉒만 있고 어떤 것은 ㉓만 있
 기도 하지만, 대체로 둘이 함께 드러난다. <마장전>은 광인(狂人) 셋이
 세상을 피해 돌아다니는데, 사실은 정상입네 하며 참소하고 아첨하는 무
 리들이 그보다 더하다 했다. <예덕선생전>은 선비가 먹고사는 데 급급하
 다 모든 것이 이지러지는 데 반해 예덕선생은 똥을 푸면서도 반듯했다고
 했다. <민옹전>의 민옹은 남들이 보기에 하찮은 일 같지만 부지런히 하
 는 인물로, 사람들이 농작물을 해치는 황충보다 더하다고 하면서 게으름
 을 질타한다. <양반전>은 양반의 본분을 다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하고
 잇속이나 챙기는 사람을 비교하고 있다. <김신선전>은 신선처럼 살아가
 는 어느 선비에 대해 말하면서 청정함을 강조하며 남을 해치고 탐욕스러
 운 사람들을 비판한다. <광문전>은 의도하지 않고도 명성이 높아져 낭패
 를 본 인물을 통해, 스스로 명예를 구하려 나선 사람의 위험성을 경고한

13) ㉑ 淸濁無失 不伎不求 -박지원(2007), 146쪽.

14) ㉒ 非好名者 猶不免刑 ㉓ 矧復盜竊 要假以爭 -박지원(2007), 146쪽

15) ㉔ 禮失 ㉕ 求野 박지원(2007), 146쪽.

16) ㉖ 詩發含珠 愿賊亂紫 -박지원(2007), 147쪽.

17) ㉗ 入孝出悌 未學謂學 -박지원(2007), 147쪽.

다. <우상전>은 서울에서는 예가 사라지고 시골에서 도리어 예가 남아있다고 하여, 중인층인 역관에게 양반층보다 더한 학예가 있음을 드러낸다. <역학대도전>은 학문으로 명예를 흠치는 자를 경계하고, <봉산학자전>은 배움이 없어도 행실이 좋은 사람을 칭찬한다.

이 가운데 입전(立傳) 대상 인물이 명백한 양반으로 보이는 경우는 <민옹전>, <김신선전>, <양반전>, <역학대도전>이고, 나머지 작품들은 중인 이하의 계층이다. 그러나 <민옹전>과 <김신선전> 역시 세속에 뜻을 두지 않은 이인(異人)이어서 여느 양반층과는 다르다. 결국 작품의 태반이 양반이어도 벼슬에 나가지 않고 숨어 지내며 기이한 행적을 남긴 사람이나, 중인 이하의 계층 사람들 가운데 행적이 반듯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면, <양반전>과 <역학대도전>만이 실질적인 여느 양반층을 입전 대상으로 삼은 특이한 사례이겠는데, <역학대도전>은 작품이 남아있지 않아서 전모를 알 수 없다. 다만, <역학대도전>과 함께 없어진 <봉산학자전>의 내용을 대략 유추해 보면 <양반전>의 구성을 이해할 단초가 마련된다. 먼저 <역학대도전>은 그 제명(題名)에서부터 내용이 분명해서 역학(易學)을 공부하는 사람이 사실은 대도(大盜)라는 말이다. 박지원의 아들 박중채가 외숙부 이재성의 진술을 기록해놓은 대로 이 작품은 “당시에 선비로서의 명성을 빌려 권세와 이권을 몰래 사들여 기세등등한 자가 있어서 너희 부친이 이 글을 지어 기롱한 것”¹⁸⁾이다. 역학(易學)을 공부한다는 것은 세상 변화의 이치를 궁구한다는 말이다. 그런데 그런 이치를 깨쳤다고 사람들을 현혹하여 세상을 어지럽히는 사람이라면 틀림없이 장자(莊子)가 말하는 ‘대도(大盜)’이며¹⁹⁾, 소순(蘇洵)의 <변간론(辨姦論)>

18) 當時有托儒名而潛售權利勢焰熏灼者 府君作是文以譏之. 박지원(2007), 217쪽.

19) <대도전>의 ‘대도’를 『장자』의 「거협(去箝)」에 나오는 대도와 연결 지은 예는 이기원, 『燕巖小說研究』, 을유문화사, 1965, 424쪽.

에서 촉발되었다 할 만큼 해악이 큰 간신(姦臣)이다.

이에 비해 <봉산학자전>은 시속(時俗)에 저촉될 위험이 적었던 것 같은데 <역학대도전>을 소각하는 과정에서 덩달아 유실되고 말았다 한다. 서문에서 공명선(公明宣)의 고사를 가져온 것을 보면, 이 주인공 또한 책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 궁행(躬行)의 미덕을 체득한 인물인 듯하다. 책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 행실로 배우고 실천하여 학(學)의 이치를 깨친 것이다. 이덕무의 『청장관전서(靑莊館全書)』에 나오는 봉산의 무식한 농민 이야기가 이 작품과 연계될 것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그는 한글이나 깨친 정도였지만 『소학언해(小學諺解)』를 읽고 매사에 실천에 힘썼다고 한다.²⁰⁾ 이렇게 보면, 어려운 역학(易學)을 공부해서 난신(亂臣)이 되고 만 양반과, 『소학언해』나 읽을 줄 알지만 참된 삶을 살고자 애쓴 상민(常民)은 서로의 대척점에 선 꼴이며, 이를 <양반전>의 서문과 연계하면 “곤궁해도 선비 본색 잃지 않네.”의 주인공은 <봉산학자전>에 있고, “장사치와 뭐가 다르랴.”의 주인공은 <역학대도전>에 있다.

그렇다면, 박지원이 『방경각외전』을 쓰면서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양반은 필경 “영달해도 선비 본분 안 떠나네.”의 주인공일 것이다. 그런 선비라야만 역으로 “곤궁해도 선비 본색 잃지 않네.”의 참된 본보기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방경각외전』의 어떤 작품에서도 그런 본을 제대로 보이는 선비는 등장하지 않는다. 『예덕선생전』에 나오는 선굴자(蟬橘子) 정도가 근접한다 하겠지만, 그 역시 학행이 출중한 선비의 모습일 뿐 영달해서의 행실에 대해서는 드러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인물의 비중에 있어서 전체 서사의 중심에 서지 못한다. 이로 보면 박지원은 『방경각외전』에서 대체로 양반의 좋은 본보기를 제시하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그릇된 양반의 행실을 비판하려 했던 것이 분명하다.

20) 이런 주장은 박지원(2007), 148쪽의 역자(신호열·김명호) 각주19에 나온다.

이 점에서 『방경각외전』 가운데 <양반전>은 눈여겨볼 작품이다. 양반과 상민이 함께 등장할 뿐만 아니라, 양반 또한 현직 군수인 벼슬아치[士]와 집안에서 글만 읽는 만년 선비[大夫]가 등장하기 때문이다. 한편으로는 존귀함/비천함이 짝을 이루고 또 한편으로는 고결함/저속함이 짝을 이루면서 독특한 서사를 이끌어간다.

3. <양반전> 인물의 대립 양상

1) 양반과 상민 : 정선 양반 대(對) 천부(賤富)

신분제가 고착되어 흔들림이 없을 때라면 존귀함과 고결함의 엇갈림은 문제되지 않는다. 대체로 존귀한 신분을 지닌 사람에게 고결함을 얻을 기회가 많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분제에 동요가 일기 시작하면 사태는 달라진다. 박지원 당대의 정황을 살펴보면 경화사족(京華士族)의 등장이 중요한 변화라 할 수 있다. 영조대에 실시된 탕평책(蕩平策)의 결과 서울 주변 산림(山林)의 문인과 제자들이 관료로 진출한 데 이어 정조대에 사람의 소위 ‘청론(淸論)’ 세력을 정치적 기반으로 삼으면서 이런 움직임은 가속화되었다.²¹⁾ 그러나 경화사족이 모두 다 권력의 핵심으로 옮겨갈 수는 없었고 일부가 권력 깊숙이 들어가 거족(巨族)으로 발돋움하는 가운데, 일부는 몰락하여 잔반(殘班), 파락호(破落戶), 유식자(遊食者) 등을 양산하기에 이른다.

<양반전>은 이런 변화 가운데 흔들리는 신분 제도 문제를 정면으로

21) 이에 대해서는 유봉학, 『정조대왕의 꿈』, 신구문화사, 2001, 117~120쪽 참조. 여기에 서의 “‘청론’은 사림정치의 원칙론에 입각하여 특권세력의 개입을 반대하고 학문정치와 공론정치의 실천을 주장하는 정치세력을 지칭하는 말이다.”(86쪽)

다루고 있다. 작품 전반에 등장하는 두 인물은 정선 양반과 천부(賤富)이다. 둘의 대립은 결국 ‘가난한 양반’과 ‘부자 상민’이 맞서는 형국인데, 신분제의 동요가 없이는 일어나기 어려운 대결 양상이다. 그러나 부를 얻는다 해도 그것이 곧바로 양반들이 독점하던 고결함, 곧 사(士)의 지위를 얻는 것이 아니었다. 이는 앞서 보인 『방경각외전』의 많은 상민들이 선비의 기본 도리를 다함으로써 여느 양반보다 우월할 수 있다고 했던 상황과 대비된다. <양반전>의 서두 부분을 보자.

① 양반이란 사족(士族)을 높여 부르는 말이다. ② 정선 고을에 한 양반이 있었는데 어질고 글 읽기를 좋아하였으므로, 군수가 새로 도임하게 되면 반드시 몸소 그의 오두막집에 가서 인사를 차렸다. ③ 그러나 집이 가난하여 해마다 관청의 환곡을 빌려 먹다 보니, 해마다 쌓여서 그 빛이 1천 섬에 이르렀다. 관찰사가 고을을 순행하면서 환곡 출납을 조사해 보고 크게 노하여, “어떤 놈의 양반이 군량미를 축냈단 말인가?”하고서 그 양반을 가두라고 명했다.²²⁾

①에서 양반이란 “사족의 다른 이름이다.”라고 하지 않고 “사족을 높여 부르는 말[士族之尊稱]”이라고 했다. 박지원의 소론(所論)에 의하면 선비란 “그 지위가 아래로는 농(農)·공(工)과 다를 바 없지만, 덕으로 말하면 왕공이 평소 섬기는 존재”²³⁾이다. 지위의 존귀함으로는 여느 백성과 다르지 않지만 인품 등의 고결함으로는 왕공도 섬겨야 할 만큼 드높다는 말이다. 그래서 같은 글에서 “대부를 ‘사대부(士大夫)’라 하는 것은 높여

22) ①兩班者 士族之尊稱也. ②旌善之郡 有一兩班 賢而好讀書 每郡守新至 必親造其廬而禮之. ③然家貧 歲食郡糶 積歲至千石. 觀察使巡行郡邑 閹糶糶 大怒曰 何物兩班 乃乏軍興 命囚其兩班. -박지원(2007), 186쪽.

23) 夫士下列農工 上友王公. 以位則無等也. 以德則雅事也. <원사(原士)>, -박지원(2007), 366쪽.

서 부르는 이름이요, 군자를 ‘사군자(士君子)’라 하는 것은 어질게 여겨서 부르는 이름”²⁴⁾이라고 했다. 이는 <양반전>의 서두에서 사족을 높여 부르는 칭호가 ‘양반’이라고 한 것과 배치된다. 벼슬아치를 가리키는 말인 ‘대부(大夫)’를 높여 부르기 위해 ‘사(士)-’가 접두어로 동원된 것이라는 원론과, 현실에서 ‘선비’ 대신 ‘양반(兩班)’이라 하는 것이 존칭이 되는 현실이 서로 어긋나는 것이다.

이런 어긋남은 그 뒤로도 계속된다. ②에서 정선 고을의 양반이 군수가 찾아뵈고 인사를 올리지 않으면 안 될 만큼의 덕망을 쌓은 인물로 서술되지만 ③에서는 매년 가져다 쓴 환곡이 천 섬이라는 데에 이르러 상황이 역전된다. 기록에 의하면 정선 고을의 환곡 규모가 500석에도 못 미쳤으니²⁵⁾ 1,000석을 가져다 쓴다는 자체만으로도 어질고 글 읽기를 좋아하였다는 앞의 진술과 모순된다. 그렇게 많은 환곡을 지속적으로 얻어올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군수가 인사 올 정도의 유지(有志)였기에 가능한 일이었으며, 글 읽기를 좋아한 선비였다면 그만큼 양의 곡식을 축낼 까닭이 없기 때문이다.

결국, ④에 이르면 ②에 서술된 고상한 양반은 종적을 감추고 “何物兩班”의 ‘물건[物]’으로 전락하며, 아내의 입에서 문반과 무반을 합친 ‘양반’을 엮전 ‘한 냥(兩) 반’으로 희화화하기까지 하게 하여 양반의 현실적 지위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만다. 『방경각외전』의 서문에서 <양반전>에 붙여두었던 “곤궁해도 선비 본색 잃지 않네.”의 규율에 비추어 본다면, 한편으로는 어려운 가운데 책을 열심히 읽는 인물이면서 호구(糊口)를 빌미로 선비가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염치마저 갖지 못한 이중성을 보이는 것

24) 大夫曰士大夫 尊之也. 君子曰士君子 賢之也. -박지원(2007), 367쪽.

25) 『旌善郡邑誌』에 따르면 社還米의 규모는 469석 5말 4되였다. (이기원(1965), 앞의 책, 328쪽 참조)

이다. 이처럼 한 인물에게서 상반되는 두 가지 특성이 드러날 때 캐릭터의 측면에서 역동적인 흐름을 보이기 쉽다. 인물의 움직임이 어느 한 방향으로 고착되지 않고 양방향의 작용에 의해 예측불허의 방향성을 띠기 때문인데, 이 점에서 천부(賤富) 또한 양반 못지않은 양면성을 보인다.

그때 마을에 사는 부자가 식구들과 상의하기를, ①“양반은 아무리 가난해도 늘 높고 귀하며, 우리는 아무리 잘 살아도 늘 낮고 천하여 감히 말도 타지 못한다. 또한 양반을 보면 움츠러들어 숨도 제대로 못 쉬고 뜰아래 엎드려 절해야 하며, 코를 땅에 박고 무릎으로 기어가야 하니 우리는 이와 같이 욕을 보는 신세다. 지금 저 양반이 환곡을 갚을 길이 없어 이만저만 군육(窘辱)을 보고 있지 않으니 진실로 양반의 신분을 보존 못할 형편이다. 그러니 우리가 그 양반을 사서 가져보자.” …(중략)… 군수가 탄복하며, ②“군자로서, 부자여! 양반이로다, 부자여! 부자로서 인식하지 않은 것은 의(義)요, 남의 어려운 일을 봐준 것은 인(仁)이요, 비천한 것을 싫어하고 존귀한 것을 바라는 것은 지(智)라 할 것이니 이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양반이로고…(하략)…”²⁶⁾

표면상의 대립은 ①의 신분과 ②의 품성에 있다. 작중의 부자는 ①에서 는 기 한 번 제대로 못 펴는 딱한 처지의 상민이지만, ②에서는 인(仁), 의(義), 지(智)를 두루 갖춘 고결한 인격을 갖춘 군자이다. 『방경각외전』의 일반적 서사문법처럼 존귀함과 고결함이 전도된 딱한 사례이겠는데, ②의 진술에서 어딘가 이상한 대목을 발견하게 된다. 유교에서 사단(四端)을

26) 其里之富人 私相議曰 ①兩班雖貧 常尊榮. 我雖富 常卑賤. 不敢騎馬. 見兩班則 踟躕屏營 匍匐拜庭 曳鼻膝行. 我常如此 其僂辱也. 今兩班貧不能償糶 方大窘. 其勢誠不能保其兩班 我且買而有之. …(中略)… 郡守歎曰 ②君子哉富人也. 兩班哉富人也. 富而不吝 義也. 急人之難 仁也. 惡卑而慕尊 智也. 此眞兩班. …(下略)… -박지원(2007), 187~188쪽.

이야기할 때는 언제나 인의예지(仁義禮智)가 한 쪽으로 거론되는데, 여기에서는 특이하게도 예(禮)가 빠져 있는 것이다. 아무래도 이 인물에게 예(禮)의 단서가 되는 사양지심(辭讓之心)이 없기 때문이겠으며, 이 부자의 행위가 예의 중심인 수직적 분별을 혼란스럽게 하기 때문이겠다.

더욱이 ②에 거론된 찬사를 가만 뜯어보면, 실제 내용이라기보다는 거짓으로 과장하여 심지어는 비아냥거리는 뉘앙스까지 감지하게 된다. 인색하지 않아 의(義)라고 했지만, 자기가 쓰기 위한 권리를 사려는 ‘교환’ 내지는 ‘거래’ 행위여서 여느 의와는 구별된다. 같은 맥락에서 남의 어려움을 봐준 인(仁) 역시, 실제로는 그런 어려움을 기화로 제 잇속을 챙기는 일이 된다. 비천한 것을 싫어하고 존귀한 것을 바라는 지(智) 또한 그것이 인지상정이기는 하나, 이 경우에 있어서는 자신의 비천함을 벗기 위해 타인을 비천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문제가 서려 있다.

표면적으로는, 정선 양반과 천부 모두 인품이 매우 고결한 것으로 진술되어 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지위가 천양지차(天壤之差)라는 사실이다. 정선 양반이 높은 지위에 높은 인품을 지녔다면, 천부는 낮은 지위에 높은 인품을 지녔다.²⁷⁾ 그러나 이면에 숨은 욕망을 헤아리면 양자의 인품은 사실 그리 좋은 편이 못 된다. 모두 혼란한 틈을 이용하여, 남의 돈으로 처벌을 면하려 하거나 제 돈을 써서 낮은 지위를 끌어올리려 할 뿐이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최소한 염치나 상대에 대한 배려가 없이, 현재의 어려운 처지를 모면하고픈 욕망과 그를 위한 검은 거래만이 있을 뿐이다. 이 점을 생각하면 둘의 대립 양상은, 자신에게서 나온 욕망을 끝까지 추구해

27) 이강영, 「소설교육에서의 주제 탐색 방법 試論-‘兩班傳’을 실례로」(『국어교육』 87·88합집, 한국국어교육연구회, 1995)에서 <양반전>의 인물별로 ‘신분, 재력, 덕망, 권세’ 자질이 어떻게 대립하는지 검토된 바 있으며(165~167쪽), 이주영, 「관계 분석을 통해 본 <양반전>의 재해석」(『어문연구』 164, 2014)에서는 권위, 호의, 재물, 신분 등의 수수관계로 해석을 시도한 바 있다.

내지 못한다는 점에서 대척적이기는커녕 상동성(相同性)을 보인다.

기존 연구사를 일별하면 주로 초기 연구를 중심으로 정선 양반을 두고는 부정적 인물형으로 보는 견해가 압도적이었다. “그는 몹시 연골(軟骨)이었고” “타성(惰性)에 의한 자립적 정치의 기백(氣魄)을 잃은 데에서 온 갖 비운(悲運)을 초래한 인물”²⁸⁾이라는 평가에서부터 “비실용적인 독서만 하고 생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몰락 양반”²⁹⁾, “궁벽한 시골에서 양반이란 허울을 빙자하여 무위도식하며 관곡(官穀)에 기식(寄食)하고 사는 비생산적이고 소극적인 양반형”³⁰⁾ 등으로 평가되었다. 그렇지만 그가 약질임이 문제이기는 해도 고의적인 악행을 저지르지 않는 비교적 선량한 인물이며, 비실용적이라며 시비할 수는 있겠지만 열심히 독서하며 선비의 본분을 다하려했던 의도까지 무시할 수는 없다. 시선을 천부에게로 돌리면 이런 양상은 정반대로 드러난다. 비록 신분권을 사려는 어리석음을 보이는 것은 하지만 중국에는 도적이 될 수 없다며 양반되기를 포기함으로써 “서민세계의 진실한 삶의 모습”³¹⁾을 보인 것으로까지 평가되기도 하였다.

이 모든 어긋남의 근원에는 부(富)의 문제가 잠재해 있다. 물려받은 토지와 노비가 있어서 생계를 꾸릴 수 없는 양반이라면 벼슬살이 외에는 뽀족한 대책이 있을 수 없는데, 농·공·상으로 가는 길마저 차단된다면 생계 대책은 묘연하게 된다. 거꾸로, 상민으로 농·공·상에서 거둔 수익으로 부를 축적한 경우 역시 방향은 달라도 마찬가지로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부를 축적하는 이유는 그로써 부의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잘 모아두었다가 지금보다 더 효용가치가 높을 때 사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28) 이가원(1965), 앞의 책, 296쪽.

29) 박기석, 『박지원문학연구』, 삼지원, 1984, 129쪽.

30) 황재강, 『조선왕조소설연구』, 단대출판부, 1991, 305쪽.

31) 박기석(1984), 위의 책, 129쪽.

그러나 이 작품의 부자처럼 아무리 축적을 해도 일정 효용 이상을 발휘할 수 없다면 경제행위의 효용성이 떨어진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정선 양반은 부(富)만 있다면 효용을 높일 수 있지만 그럴 부가 없고, 반대로 천부는 부(富)는 가지고 있지만 효용을 극대화할 방법이 없는 것이다.

2) 사(士)와 대부(大夫) : 정선 양반 대(對) 군수

그런데 <양반전>에는 정선 양반 이외에 두 명의 양반이 등장하는데, 한 명은 정선 양반을 잡아 가두라고 명하는 관찰사이고 또 한 명은 정선 군수이다. 관찰사의 경우는 작품 초반에 잠깐 나오고는 말 뿐이어서 성격 을 가늠해볼 만큼의 형상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군수의 경우는 작품의 처음부터 끝까지 등장할 뿐만 아니라 정선 양반과 천부 사이에 중개를 자임하면서 서사의 방향을 좌지우지하는 인물로 사실상의 주인공이기도 하다.³²⁾ 특히 그는 벼슬아치로서 정선 양반이 ‘사(士)’의 자리를 지키는 가운데, 그 다른 편에서 있는 ‘대부(大夫)’로서 한 짝이 된다. 둘이 동일한 신분인 양반이지만 군수는 정선 양반이 갖지 못한 권세를 가진 셈이다. 이 둘은 흔히 말하는 사/대부의 한 짝으로, 이상적으로 보자면 서로 순환하며 보완하는 기능을 한다. 물론 이렇게 보는 데도 적잖은 난점이 있다. 먼저, 정선 양반이 비록 벼슬은 하지 않았어도 군수가 몸소 찾아와 인사를 올릴 정도의 영향력이 있었다는 점에서 권세가 아주 없다 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다만 향촌에서 암묵적으로 통용되는 사적인 권세가 아니라 중앙정부에서 인정한 공적인 권세가 없었다는 정도로 이해해볼 수 있다.

다음으로, 군수가 과연 어떤 인물인가를 두고 그 덕망의 부분에서 논란

32) “<양반전>의 주인공은 이 작품 가운데서 가장 중심되는 역할을 하는 군수(郡守)이다.” -이원주, 「<양반전> 재고(再考)」, 차용주 편, 『燕巖研究』, 계명대학교출판부, 1984, 456쪽.

이 일 여지가 있지만, 적어도 표면상으로 드러난 군수의 행위는 그 나름의 합리적인 면을 갖추고 있다. 그는 먼저 부임하여 정선 양반에게 인사를 간다거나, 관찰사의 명에 따라 환곡을 갚지 못하는 정선 양반을 잡아 가두기로 하는 등 자신의 본분에 충실하다. 자신이 비록 존경하는 인물이더라도 실정법을 어겼을 때³³⁾는 가차 없이 법적 제재를 가해야 하는 엄정성을 엿볼 수 있게 한다. 한편, 그런 가운데도 “내심 안타깝게 여겨 차마 가두지는 못하였으나, 그 역시도 어찌할 수 없는 일”³⁴⁾이었다는 서술을 통해 그가 인정(人情)과 공무(公務) 사이에서 고뇌하는 인간적인 면모 또한 놓치지 않고 있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이다. 그는 양반에게서 사적인 거래를 통해서나마 신분매매가 이루어졌다는 말을 듣고, 그 이전에 정선 양반에게 행하던 예법 그대로 천부에게 행하는 기만함을 보였다. 이어지는 문권 내용만 시비하지 않는다면, 목민관으로서 바른 처신이라 할 만하며, 지역민간의 분쟁에서 화해를 시도하고 엄정한 송사(訟事)를 진행해야 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군수의 인물평으로 “몹시 세련된 관료적인 인간형을 지닌 자인 것은 틀림없었다.”³⁵⁾거나 “군수의 본질적 성격은 성실한 목민관(牧民官)”³⁶⁾이라는 판단이 가능하다.

그러나 작품의 미세한 부분을 파고들면 그렇게 보기에는 석연찮은 구석이 발견된다. 그가 스스로 나서서 주도한 중개 기능은 중립성을 잃고

33) 실제로 “『대전회통(大典會通)』에 보면, 공채(公債)로 육백냥 이상인 자가 기한 안에 원리상환(元利償還)을 못하면 양인이라도 노비가 되며, 당상관(堂上官)이나 가선자(嘉善者)의 경우엔 당사자는 정배(定配), 그 처자(妻子)는 노비로 삼았는데, 만약 그 자손 중에 이를 추납(追納)하면 본래의 신분으로 복귀된다는 조항이 있다.”(『대전회통』 권2 『戶典徵價』, 박기석(2007), 123쪽에서 인용)

34) 不忍囚之 亦無可奈何 -박지원(2007), 186쪽.

35) 이가원(1965), 앞의 책, 298쪽.

36) 윤승준, 『양반전』, 황폐강교수정년퇴임기념논총간행위원회 편, 『황폐강교수정년기퇴임기념논총(Ⅱ) 고전소설연구』, 일지사, 1993, 945쪽.

정선 양반에게만 유리하게 보이도록 하여 일면 패덕(悖德)의 수준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군수가 양반때때 사실을 알고 난 후 터뜨린 일성은 “군자로다, 부자여!”의 탄성이었다. 문면대로 받아들인다면 부자가 양반의 곤궁한 처지를 알고 구해준 덕을 칭송하는 대목이다. 곧이어 만들어진 문권에서 “덕이 있으면 군자”³⁷⁾라는 말이 명기된 데서 그렇게 부른 의도가 분명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렇게 부른 의도가 정말 순수한가에 있을 것인데, 두 번째 문권을 꼼꼼히 파악하면 그렇게 보기 어렵다. 일단 양반이 된 이상 제 아무리 포악하게 군다 한들 “누가 나를 거역하리. 네 놈 코에 잣물 붓고, 상투 잡아 도리질치고 귀알수염 다 뽑아도, 감히 원망 없느니라.”³⁸⁾로, 정도(正道)를 훨씬 넘어서기 때문이다.

이원주의 지적대로, 이 대목에서 쓰인 명사 ‘나’와 ‘너’는 매우 기발하다.³⁹⁾ 이미 천 석에 제 신분을 팔아버린 양반이 군수에게 머리를 조아릴 때 군수가 양반을 부른 호칭은 ‘족하(足下)’였다. 양반이 잠방이 차림으로 몸을 굽신거리며 나타났을 때도 서로 대등한 입장이라는 점을 전제로 호칭했던 것이다. 그러나 천부의 이의 제기에 의해서 수정된 두 번째 문권에서는 자못 공적인 문서인 듯 객관성을 유지하며 나가다가 군수가 스스로를 ‘나[我]’로 불공해지며, 순진한 부자는 ‘너[汝]’로 전락한다. 신분을 팔아 상민의 행색을 해도 양반은 여전히 ‘그대[足下]’로 호칭되던 데 비해 보면, 이 호칭은 매우 부당하다. 현대어의 어감을 살린다면 “네깁놈”쯤이야 언제든 우리네 양반들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폭언이며, 그 언어폭력의 결과 천부는 뒷걸음질치고 만다.

여기에서 다시 천부의 인품에 대한 해석이 갈리게 된다. 대체 천부는

37) <양반전>, 박지원, 앞의 책, 188쪽. 有德爲君子.

38) 같은 책, 191쪽. 孰敢慢我. 灰灌汝鼻. 鬣髻汰鬢. 無敢怨咨.

39) 이원주(1984), 앞의 논문, 458쪽.

왜 양반되기를 포기한 것인가? “사곡(私穀)으로 환자를 갚고 양반권을 사려는 어리석은 인간이었다.”⁴⁰⁾는 인물평과 “입권(立券)의 과정에서 참다운 자아에 눈뜰 수 있었다.”⁴¹⁾는 해석 사이의 간극은 참으로 크다. 전자는 헛된 욕망 탓에 재물만 날린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혹평이고, 후자는 그래도 나중에 각성하여 새로운 인간으로 거듭났다는 호평이다. 실제로 양반의 폐약을 적은 문권 내용을 듣고 “그만 두시오, 그만 두시오, 참으로 맹랑한 일이오, 장차 날더러 도적놈이 되란 말입니까?”⁴²⁾라며 물러섰다는 점에서, 인간적인 신념을 엿볼 법도 하지만, “네 놈 코에 갓물 붓고”운 운하는 위협 끝에 터져 나온 소리라는 데에서 진실성이 희석된다. 만약 군수 입회하에 작성하는 증서로서 매매가 공식적인 성립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그런 증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으면 매매 의사를 철회하는 것이 합리적인데 그는 그대로 달아나버린다.

이렇게 보면, 군수가 행한 목민관으로서의 소임은 반쪽짜리임이 분명하다. 철저하게 정선 양반의 편에만 서있기 때문이다. 신분 매매라는 탈법 행위를 염두에 둔 처사라 하더라도 부당하게 재물을 잃은 부자에 대한 최소한의 조처도 없이 이야기가 끝난다. 결과적으로 천부의 재물을 강탈하여 정선 양반에게 이전하는 불법적인 과정을 합법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는 형국이 되고 만다. 군수가 목민관으로서 행한 역할 역시, 앞서 살핀 정선 양반과 천부가 그랬듯이 이중적이다. 표면상의 인품을 그럴듯해보일지 몰라도 이면을 파고들면 형편없이 추한 모습이 드러난다.

이렇듯, 정선 양반, 천부, 군수의 세 인물은 표면적으로는 여러 자질에서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이며 극히 정상적이거나 고상한 인품을 갖고 있지

40) 이가원(1965), 앞의 책, 298쪽.

41) 황폐강(1991), 앞의 책, 310쪽.

42) “已之已之. 孟浪哉. 將使我爲盜耶. 掉頭而去.” -박지원(2007), 191쪽.

만, 그 이면을 조금만 뜯어보면 일그러진 면을 발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양반전>이 『방경각외전』의 다른 작품들과 크게 다른 점은 바로 여기에 있다. 선비[士]는 고결한데 대부(大夫)는 추악하다거나, 상민(常民)은 고상한데 양반은 저질이라는 식의 역설(逆說)이 설 땅이 없는 것이다. 물론 상대적으로 우열을 가려볼 여지가 있겠지만, 어느 한 사람도 정상이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에서 도리의 사태의 심각성이 한층 더 부각된다.

4. <양반전> 전체 구성과 참된 양반상(兩班像)

<양반전>은 실제 작품 양의 거의 절반을 문권 두 장에 할애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이 없이는 작가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 군수가 중재를 자임하고 나서서 처음으로 만든 문권에는 대체로 양반들이 해야 할 일들이 중심이며, 천부가 그에 대해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다시 작성된 두 번째 문권은 양반들이 누릴 혜택이 중심이다. 물론, 전자의 경우도 김태준이 양반의 ‘말세적 습관’을 ‘비소(鼻笑)’⁴³⁾한 것으로 본 이래 악의적인 해석이 주를 이루었지만 반론 또한 만만치 않았다. 가령, 원문 중의 “叩齒彈腦” 같은 대목을 두고 “더러운 행투”⁴⁴⁾로 치부하는 해석과 도가(道家) 양생법(養生法)으로 보는⁴⁵⁾ 해석 사이에는 양립하기 어려운 거리가 있다.

이제 첫째 문권부터 살펴가면서 작품의 전체 주제와 연관해 보기로 하

43) 김태준, 『조선소설사』, 학예사, 1939, 179쪽.

44) 이가원(1965), 앞의 책, 333쪽.

45) 이우성·임형택 역편, 『이조한문단편집(하)』, 일조각, 1978, 280쪽 주7) 참조.

자. 문권에 등장하는 조목은 모두 32개로, 이 조목들은 크게 세 갈래로 나뉜다. 첫째, 선비로서 학업을 쌓는 내용, 둘째, 양반의 덕을 쌓는 내용, 셋째, 선비로 지켜야 할 생활 수칙이다. 이 가운데 논란의 핵심에 선 것은 대개 셋째 것들이었다. 아무리 선비의 행실을 강조한다고 해도 지나치게 세세하며 특히 현대인의 시각으로 불합리해 보이는 것이 많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이덕무가 『서경(書經)』의 말을 인용해 지적한 대로, “미세한 행실에 힘쓰지 않으면 마침내 큰 덕을 어지럽히니”⁴⁶⁾ 대의(大義)를 실천하고자 하는 선비라면 더욱 더 그런 사소한 범절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문제는 이 첫째 문권에 적힌 내용 가운데 ‘대부(大夫)’와 직접 연결되는 지점은 전혀 없다는 점이다. 어렵사리 얻은 양반 신분으로 할 수 있는 일이란 선비로서 공부하는 것과 품행에 각별히 유념하여 덕을 쌓아 군자가 되는 것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 문권 내용을 들은 천부가 고쳐줄 것을 요구하는 까닭 또한 그 불합리성에 있다. 그리하여 고쳐진 문권에는 양반으로 누릴 수 있는 특혜가 열거되는데 이번에는 정반대의 불합리함이 드러난다. 생업에 종사하지 않고 문학과 역사를 대강 섭렵하는 것만으로도 대과(大科)를 할 수 있고, 그게 안 되더라도 최소한 소과(小科)인 진사(進士)는 무난하다고 했으며 심지어는 궤약질을 해도 괜찮다고 했다.

이 문권은 크게 두 방향에서 만만찮은 의미를 던진다. 하나는 양반의 실상과 관련된 것이다. 양반이라면 마땅히 갖추어야 할 행실이나 의무는 도외시해도 양반으로서의 특권은 얼마든지 누릴 수 있다는 것이다.⁴⁷⁾ 이는 거액을 들여 양반 신분을 사고자 한 천부에게는 매혹적인 일일 텐데 천부는 그 특권을 주저 없이 포기한다. 일면 군수의 위협적인 언사에 겁 먹은 까닭이 있겠지만 그 이면을 좀 더 파고들면 군수가 언급한 특권이

46) 이덕무, 『사소절(士小節)』, 『국역 청장관전서』 6, 민족문화추진회, 1986, 원문 1쪽.

47) 이런 시각의 논의는 이강엽(1995)에서 이루어진 바 있다.

천부에게는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포기한 정황도 포착된다. 비록 “문사(文史)를 대강 섭렵하면”이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공부를 전혀 하지 않고 돈벌이에만 몰두하던 사람이 글을 대강 익혀서 급제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 나이가 과거가 아니어도 음사(蔭仕)를 할 수 있다 했지만 벼슬을 한 조상 덕을 볼 일이 없는 천부로서는 자신과는 무관한 이야기이다. 결국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유식자(遊食者)로 지내면서 향민을 토색(討索)하는 것밖에 없었다.

우리는 여기에서 신분제의 근본적인 균열을 감지하게 된다. 박지원이 선비를 중시하는 까닭은 선비의 학문이 개인의 출세나 호사취미에 그치지 않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데 기여하기 때문이다. “선비 한 사람이 글을 읽으면 그 혜택이 사해(四海)에 미치고 그 공(功)은 만세(萬世)에 남는다.”⁴⁸⁾는 선언은 거꾸로 그렇게 되지 못한다면 왕공(王公)의 섬김을 받기는커녕 도리어 농(農)·공(工)의 생산성에도 못 미치는 한미한 존재임을 의미한다. 두 문권에 기록된 양반의 실상은 불구적(不具的)이며, 결과적으로 박지원이 제시한 학문의 공용성과는 한참 떨어진 것이다.⁴⁹⁾

만약 이상적인 사회였다면 서로 어긋남이 없어서 아무런 문제없이 각자의 자리에서 평화롭게 살아갔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신분제의 동요가 있기 이전이라고 해서 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지도 않고, 심지어는 신분제가 사라진 현대 민주사회라고 해서 거기에서 자유로울 것 같지도 않다는 데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가령, 신분제가 엄격히 유지되어서 <양반전>의 천부 같은 신분의 사람들이 양반되기를 꿈꾸지 않는다고 치

48) 一士讀書 澤及四海 功垂萬世. 박지원(2007), 366~367쪽.

49) 이상의, 『조선시대의 명분질서와 연암 박지원의 ‘공공성 회복’ 기획』, 『다산과 현대』 5, 연세대학교 강진다산실학연구원, 2013)에서는 명분론을 내세우며 차별과 수탈을 정당화하는 게 아니라 공공성 회복을 통한 인륜 공동체 실현을 추구한 것으로 보았다.

자. 그렇다고 해도 양반들이 모두 원하는 벼슬을 찾아갈 수는 없으며, 벼슬아치 중에는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이 생기게 마련이다. 결국 최고 정점에 이른 극소수의 사람들을 제외하면 아무도 만족할 수 없는 이상한 사회가 되고 말 것이다.

박지원은 이런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이름[名]’을 들고 나왔다.

천하라는 것은 텅 비어 있는 거대한 그릇이다. 그 그릇을 무엇으로써 유지하는가? ‘이름(名)’이다. 그렇다면 무엇으로써 유도할 것인가? 그것은 욕심[欲]이다. 무엇으로써 욕심을 양성할 것인가? 그것은 부끄러움[恥]이다.⁵⁰⁾

박지원에 따르면, 천하를 유지하는 첫째 비결은 바로 ‘이름’이다. 그렇다면 하필 왜 이름인가? “온 세상의 작록(爵祿)으로도 선(善)을 행하는 자에게 두루 다 상을 줄 수는 없으니, 군자는 이름[명예]으로써 선을 행하도록 권장할 수가 있다.”⁵¹⁾ 그런데 박지원은 그냥 명으로써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한 것이 아니라, ‘군자’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여 그 대상을 한정했다. 유덕한 군자라면 작록보다도 오히려 명예를 위해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다는 말이다. 그러나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명예만을 소중히 생각하여 선뜻 무슨 일을 하려 나서지 않는다면 도리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 박지원은 “천하의 재앙 중에 담담하여 욕심이 없는 것보다 더 참담한 것은 없다.”⁵²⁾고 단언했다. 보통 사람들에게는 물질적인 욕심까지 채워주어야 지레 포기하거나 제 할 일을 남에게 미뤄두는 일을 방지할 수

50) 天下者 枵然大器也.何以持之曰名. 然則何以導名曰欲. 何以養欲曰恥. <명론(名論)>, 『연암집』, 『공작관문고』, 박지원, 『연암집(중)』, 신호열·김명호 옮김, 들녘, 2007, 80쪽.

51) 天下之爵祿 莫可以遍賞乎爲善 則君子可以名勸. -박지원(2007), 80쪽.

52) 夫天下之禍 莫憚於泊然而無欲也. -박지원(2007), 82쪽.

있게 된다. 그러나 그렇게 될 때의 가장 큰 문제는 누구나 다만 무언가를 얻는 데만 골몰하게 되는 것인데,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부끄러움[恥]이다. 그래서 박지원은 “한결같이 나아가기만 하고 물러날 줄 모른다면, 천하의 재앙 중에 또한 태연하여 부끄러움이 없는 것보다 더 참담한 것은 없다.”⁵³⁾고 했으며, 그 방지책은 물러남[退]이다.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고 사양하고 물러섬으로써 균형을 취하는 것이다.

이렇게 복잡한 논의과정이 필요한 까닭은 천하의 모든 사람들이 다 군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실제로 <명론(名論)>의 맨 마지막 단락은 “만약 천하 사람들이 모두가 다 군자라면, 또한 무엇 때문에 이름에 대해 힘쓰겠는가?”⁵⁴⁾로 시작한다. 모두들 군자라면 사실은 명예도, 욕심도, 부끄러움도 거추장스러운 허울일 것이다. 적소(適所)에 있으면 있는 대로, 또 불행히도 그렇지 못한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대로 그 자리에서 제 본분을 다하며 편안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군자가 못 되는 사람들은 명예를 주어서 보상하고, 욕심을 내게 해서 권면하며, 부끄러움으로 제어해야 한다는 것이 박지원이 펼친 논리의 중핵이다. 이 논리대로라면, 명(名)과 욕(欲)과 치(恥)를 모두 갖춘 이상적인 인물에서부터 그 셋을 하나도 갖지 못한 최악의 인간까지 모두 여덟 종의 인간이 스펙트럼을 이루게 된다.

이를 토대로 <양반전>의 등장인물을 살펴보면 앞서 살핀 세 인물 모두 박지원이 상정한 이상적 군자형의 범위를 벗어난다. 드러난 명예가 없지는 않으나 아무것도 하려 들지 않다가 무능을 드러내는 정선 양반이나, 관할 지역에서 일어난 문제 해결을 위해 애를 쓰지만 부끄러움을 모르는 군수나, 애를 써 부를 축적했고 부족한 명예를 얻고자 잘못 나섰지만 부끄러움을 느끼는 천부가 다 한가지로 설명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이

53) 一於進而無退 則天下之禍又莫憚於恬然而無恥. -박지원(2007), 82~83쪽.

54) 苟使天下之人 是皆君子也 亦奚事乎名也. -박지원(2007), 84쪽.

지점에서 되짚어봐야 할 것은 박지원이 주장하는 이상적인 인간이 과연 존재하는가 하는 점이다. 그들 모두가 군자일 수도 없고, 군자가 되라고 다그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여기에서 다룬 권세나 재물 같은 외형적인 것들은 적어도 <양반전>에서 양반의 양반스러움을 드러내는 데 부차적이다. 이는 부르디외가 지적한 바, 소위 귀족들만의 ‘본질주의’와 연관된다.⁵⁵⁾ 귀족들은 자신들이 지켜오던 ‘본질’이라고 믿던 것들에 의해 특권을 누리오던 계층이기 때문에 가장 완강하게 그 이전의 상황을 고수하려고 하는 법이다. 결국 가장 늦게 전략을 바꿀 필요성을 이해하고, 자신이 누리오던 특권의 희생물이 되고 만다.⁵⁶⁾

<양반전>의 두 양반이야말로 그 전형적인 예이다. 상황이 변했지만 여전히 양반만의 본질적인 내용을 고수하려 들고, 그래서 한편에서는 정선 양반처럼 가난해도 가난하다는 내색을 해서도 안 되며 쌀값조차 물어서는 안 된다는 황당한 준칙을 내세우고, 군수처럼 이미 부를 축적한 다른 계층이 새로운 지위를 얻어가기 시작하는데도 본래대로 되돌리려 애쓴다. 이 점에서 서로 다르지만 모두 함께 그 이전에 누렸던 특권의 희생물이며,

55) “귀족들은 본질주의자들이다. 존재를 본질의 발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들은 관청의 공공문서에 기록되어 있는 상벌이나 각종 서류에 기록되어 있는 공훈이나 비행(非行)에 내적인 가치를 부여하지 않는다. 이들은 오직 어떤 행동이 비록 형태는 조금씩 다르더라도 각 행위가 수행될 수 있도록 해주는 어떤 본질을 영구화하고 널리 알려주는 특정한 영감에 따른 결과라는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경우에만 그 행동을 상찬한다. 이들이 그러한 본질이 요구하는 바 그대로 - 고귀함에는 의무가 따른다 noblesse oblige라는 원리대로 - 스스로에게 부과하고, 그밖의 다른 누구도 요구할 수 없는 바를 스스로에게 요구하고 자신의 본질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도록’ 강제하는 것 또한 바로 이러한 본질주의라고 할 수 있다.” -뻬에르 부르디외(2006), 57쪽.

56) 부르디외는 위의 인용에 대한 주석으로 이런 내용을 풀어놓았는데, 몰랐지만 생활양식을 바꾸기를 거부하는 귀족 등의 예를 들고 있다. -뻬에르 부르디외(2006), 57쪽, 각주12) 참조.

천부 또한 이 틀에서 자유롭지 않다. 양반이 자부하던 능력, 예를 들면 학문이나 예술에서의 기량을 닦지도 않으면서, 윗대가 벼슬을 해야만 누릴 수 있는 세습된 특권을 넘보기 때문이다. 서로 다른 세 인물이 서로 다른 시도를 통해 자신들의 이상을 실현해보려 했지만, 모두들 필연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구도였다 하겠다.

5. 마무리

이 글은 존귀함과 고결함의 관계에 입각하여 <양반전>의 인물 대립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이를 위해 존귀함과 고결함에 대한 원론적인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방경각외전>의 인물 개괄하였으며, <양반전> 인물들의 대립 양상에 대해 살펴 궁극적으로는 <양반전>에서 추구하는 양반상에 대해 탐구하였다.

첫째, 존귀함과 고결함의 관계에 입각하여 『방경각외전』의 인물들을 살핀 결과, 신분의 존귀함과 정신적 고결함의 엇갈림이 강조되었다. 영달하든, 곤궁하든 양반의 본분을 잃지 않는 이상적인 인간을 그려내기 위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예거하는 것이 특징이었는데, 실질적인 양반을 전면에 내세운 사례로는 <양반전>이 예외적으로 꼽힐 만큼 특별한 것이다.

둘째, <양반전>의 인물 대립 양상을 살핀 결과 존귀함과 비천함, 고결함과 저속함이 상호 침투함으로써 독특한 관계를 빚어냈다. 정선양반과 천부는 양반과 상민의 대결로 드러나며, 정선양반과 군수는 사(士)와 대부(大夫)의 대결로 드러났다. 전자의 경우, 정선양반은 표면적으로는 고결한 정신 상태를 보이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몰염치한 면을 드러내는 이중성을 보이며, 천부 또한 표면적으로는 양반에 상응하는 덕목을 갖춘 듯

이 기술되지만 그 이면에는 남의 어려운 틈을 타 사욕을 채우려는 욕망이 드러난다. 후자의 경우, 정선 양반은 선비의 미덕을 갖춘 훌륭한 양반으로 기술되지만 그 이면에는 생활력이 부족한 무능력함을 드러내며, 군수는 표면적으로는 관할 백성들을 편안하게 다스리고자 애를 쓰는 면이 부각되지만 그 이면에는 특정세력의 이익을 위해 간계를 쓰는 사악함을 담고 있다. 결과적으로 『방경각외전』의 다른 작품들처럼 존귀함과 고결함이 역설 관계를 보이는 게 아니라 어느 한쪽도 정상적으로 살아나가기 어려운 총체적 난국임을 드러낸다.

셋째, 문권 등까지 고려하여 전체구성을 살피면서 <양반전>에 나타나는 양반상을 살폈는데, 박지원이 <명론>에서 주장한 명(名), 욕(欲), 치(恥)는 중요한 준거가 된다. 박지원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군자일 수 없기에 명과 욕과 치를 적절하게 사용하여야 세상이 잘 다스려진다고 보았는데, <양반전>의 세 인물은 한결같이 결함을 지니게 된다. 정선양반은 명예를 높이 치느라 욕망을 작동하지 않았지만, 부끄러움을 모르며, 부에 대한 욕망을 달성했지만 명예를 드날릴 기회가 없었으며, 끝내 부끄러움을 느껴 헛된 욕망을 접었다. 군수는 명예와 욕망을 다 누린 듯하지만 균형을 잃어 부끄러움을 잃고 말았다. 이렇게 전체 서사를 훑어갈 때, 어느 한편의 인물이 긍정적, 혹은 부정적으로 그려냈다는 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구조 속에서는 어떤 인물도 이상적인 삶을 영위하기 어렵다는 점이 중요해 보인다.

참고문헌

- 김태준, 『조선소설사』, 학예사, 1939, 1~234쪽.
- 김현, 『르네 지라르 혹은 폭력의 구조』, 나남, 1987, 1~244쪽.
- 박기석, 『박지원문학연구』, 삼지원, 1984, 1~215쪽.
- 박지원, 『연암집(중)』, 신호열·김명호 옮김, 돌베개, 2007.
- 송준호, 『조선사회사연구』, 일조각, 1987, 1~518쪽.
- 유봉학, 『정조대왕의 꿈』, 신구문화사, 2001, 1~309쪽.
- 윤승준, 『양반전』, 황폐강교수정년퇴임기념논총간행위원회 편, 『황폐강교수정년기 퇴임기념논총(Ⅱ) 고전소설연구』, 일지사, 1993, 928~953쪽.
- 이기원, 『燕巖小說研究』, 을유문화사, 1965, 1~796쪽.
- 이강엽, 『소설교육에서의 주제 탐색 방법 試論-‘兩班傳’을 실례로』, 『국어교육』 87·88합집, 한국국어교육연구회, 1995, 117~141쪽.
- 이덕무, 『사소절(士小節)』, 『국역 청장관전서』 6, 민족문화추진회, 1986.
- 이상익, 『조선시대의 명분질서와 연암 박지원의 ‘공공성 회복’ 기회』, 『다산과 현대』 5, 연세대학교 강진다산실학연구원, 2013, 259~288쪽.
- 이우성·임형택 역편, 『이조한문단편집(하)』, 일조각, 1978, 1~461쪽.
- 이원주, 『<양반전> 재고(再考)』, 차용주 편, 『燕巖研究』, 계명대학교출판부, 1984, 455~474쪽.
- 이주영, 『관계 분석을 통해 본 <양반전>의 재해석』, 『어문연구』 164, 2014, 141~162쪽.
- 황폐강, 『조선왕조소설연구』, 단대출판부, 1991, 1~528쪽.
- 미야지마 히로시, 『양반』, 노영구 역, 강, 1996, 1~289쪽.
- 삐에르 부르디외, 『구별짓기 : 문화와 취향의 사회학(하)』, 최종철 옮김, 새물결, 2006, 422~917쪽.
- 안네마리 피퍼, 『선과 악』, 이재황 옮김, 이갈리오, 2002, 1~208쪽.

ABSTRACT

The Dignity and Nobility, the Character Confrontation of
<Yangban-jeon>, and the Image of “Yangban”

Lee, Kang-yeop

This article discusses the character confrontation of the <Yangban-jeon> based on the relationship between dignity and nobility.

First, after looking at the characters of *Bangkyeong-gak Oejeon* based on the relationship between dignity and nobility, the disagreement of the dignity of social status and the nobility of mind were emphasized.

Secondly, the confrontation between the characters of the <Yangaban-jeon> permeates each other between dignity, lowliness, integrity and vulgarity. It is a confrontation between Jeongseon yangban vs lowly rich, Jeongseon Yangbang vs reeve. As a result, it reveals a total mess where no one side can live off ordinarily, unlike other works from *Bangkyeong-gak Oejeon* where dignity and nobility are in a paradoxical relationship.

Third, if we examine the yangban image in <Yangban-jeon> while looking at the whole composition even considering business contract documents, the name, the desire, and the shame that Park Ji-won insists in <A Debate on Honor> become important criteria.

Key Words Park Ji-Won, <Yangban-jeon>, *Bangkyeong-gak Oejeon*, dignity, nobility, <A Debate on Honor>

논문투고일 : 2018.01.19

심사완료일 : 2018.02.05

게재확정일 : 2018.02.12